coupang newsroom

# [보도자료] 쿠팡 CPLB, 농산물 중소공급사 100여곳과 PB 파트너십 강화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노하우 공유”

2025. 9. 25.

솔라이 삭티벨 CPLB 전무와 품질관리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된 중소 공급사 관계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24일, 쿠팡 잠실 오피스에서 ‘2025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 진행**
- **쿠팡의 엄격한 품질관리 노하우 공유 및 우수 품질관리 파트너사 5곳 선정해 감사패 전달**

2025. 09. 25. 서울 -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지난 24일 쿠팡 잠실 오피스에서 ‘2025년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파트너사뿐만 아니라 신규 파트너사까지 초청해 채소·과일 품질 및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CPLB 2025 공급사 농산물 품질 설명회 전경

설명회에는 쿠팡에 농산물을 PB상품으로 공급하는 100여개 파트너사와 솔라이 삭티벨 CPLB 전무를 비롯한 주요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CPLB는 ▲단계별 상품 관리 프로세스 ▲상품별 품질 규격 및 검품 기준 ▲반품 사례 분석 ▲해충 및 설치류 방제법 등을 공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CPLB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식품 안전 기준을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서 CPLB는 지난 1년 간 품질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사 5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수 파트너사는 (주)엘제이농산,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송이애, 영농조합법인 광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온샘 등이다.

이헌기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는 “쿠팡의 물류망을 통해 우리 진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품이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다”며 “안정적인 판로와 매출을 확보해 기업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도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소감을 밝혔다.

솔라이 CPLB 전무는 “고객에게 양질의 채소와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CPLB와 함께하는 중소 파트너사와의 협력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상생 모델을 강화하는 다양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PLB와 함께하는 중소 제조사는 지난 24년 기준 630여곳으로, 2019년(160여곳) 대비 4배 증가했다. 이들 중소 제조사의 고용인원도 꾸준히 늘어, 올 초 2만 70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약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